

건축가 정기용 그는 누구인가

작가의 생애 (감응 정기용 1945~2011)

1945년 충북 영동군에서 출생했다. 호는 환천(幻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서울대 대학원 공예과를 졸업했다. 1972년 프랑스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프랑스로 건너가 1975년 프랑스 파리장식미술학교(ENSAD) 실내 건축과, 1978년 프랑스 파리 제6대학(UPA6) 건축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정부 공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파리 소재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다 1986년 기용 건축을 설립했다.

정기용 건축가는 우리나라 공공 건축에 있어 큰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 진행한 무주 공공 건축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연출한 등나무 운동장과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준 안성면사무소 내의 공중 목욕탕, 부남면사무소 내의 천문대 설치 등 무주에 30여 건의 공공 건축물을 남겼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MBC가 기획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에서 순천, 진해, 제주, 서귀포, 정읍, 김해에 여섯 개의 어린이 도서관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마을 사저, 2010년 개관한 '박경리 문학의 집' 등을 설계하였다.

성균관대 석좌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문화재위원을 역임했으며, 2010년 일민 미술관에서 《감응: 정기용 건축》전을 가졌다. 2011년 3월 11일, 지병인 대장암으로 종로구 명륜동 자택에서 타계하였다.

2012년에는 고인의 삶의 철학과 그의 마지막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말하는 건축가'(각본/감독 정재은)가 개봉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공공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학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무주 공공 건축물에 대한 답사가 이어지고 있다.

[수상]

프랑스 노동성 주관 노동환경개선 설계경기 3위 (1982)

제3회 교보환경문화상 환경문화예술부문 (2000)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2000)

여성가족부 국민훈장 (2007)